



# 성남시 아동복지정책 그 너머

2018. 10. 30.  
시민복권 복지아카데미

# 성남시 아동수당, 전국 최초 100% 지급

모든 **6** 세 미만

\*대상 아동 수 : 42,800명 (2018.9.30 기준)

월 금액 **11** 만원

\*인센티브 1만원 포함



그리고 **지역화폐**

#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 경제 '훈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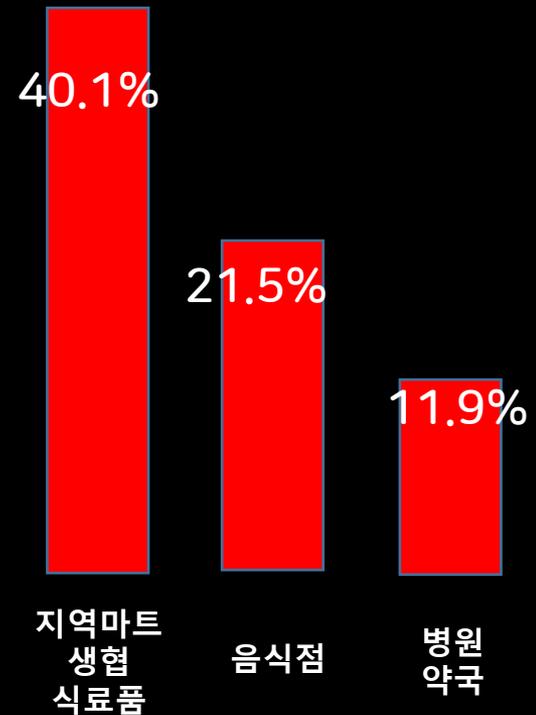
9/21 **34** 억원 지급

\*대상 아동 수 : 30,898 명 대상

**지역상권에**  
**60%** 이상 사용

\*인센티브 1만원 포함

성남시 첫 아동수당  
업종별 사용현황(단위: %)  
: 9/21~10/10



취임하자마자 아동수당부터 챙긴 것은

**뭘 위해서?**

모든 **6** 세 미만

\*대상 아동 수 : 42,800명 (2018.9.30 기준)



**포용적 복지**

월 금액 **11**만원

\*인센티브 1만원 포함



**사회소득**

**지역화폐**



양극화 메워주는 **완충장치**



45년 전, 서울에 살던 철거민 약 12만여명이  
강제이주되어 만들어진 곳, 성남.

화장실도 수도도 없던 산등성이에서 천막을 치며 사셨던  
어르신은 "장례 치를 돈도 없었다"고 당시를 기억합니다.



허나 시민들의 노력 속에서  
성남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장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커지는 과정  
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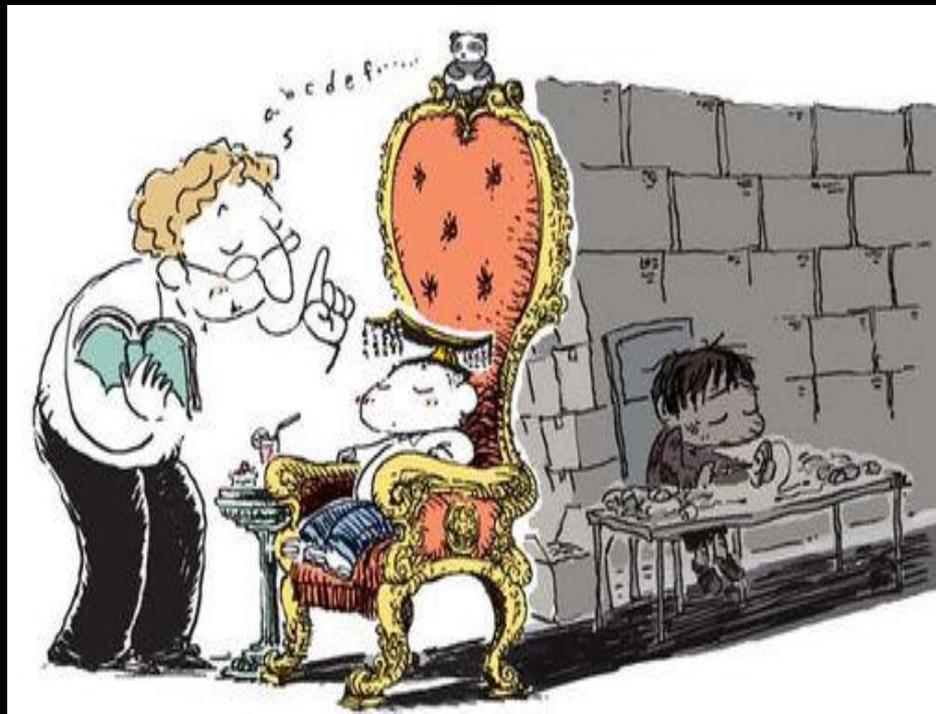
예를 들어 소득 격차

아동수당을 위해 조사를 해보니

부모소득 상위 10% 비교

중원구 2.5%

분당구 14.7%



**건강수명상·하위 시군구** 건강수명이 긴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 서울 서초구, 용인 수지구, 서울 강남구, 서울 용산구 순이다. 반면 건강수명이 짧은 지역은 경남 하동군, 전북 고창군, 경남 남해군, 전남 신안군, 강원 태백시 순이다. 의료시설이 근접해 있고,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의 건강수명이 현저히 길다.



## 건강수명 격차

분당구(74.8세)

아무래도 의료시설이 가깝고 생활수준이 높아서 일테죠.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의 고령자일수록 활동제약을 ↓,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

## 폭염 격차

이번 여름에 제가 살고 있는 중원구보다 분당구가 3도 정도 온도가 낮았어요.



물론 이것이 성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주요한 해결과제이니까요.





그동안 우리 모두는  
다양한 방식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 '착취당할 자유'  
조차 없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고,  
권력과 부를 사람들의 행복으로  
바꾸고 복지로 나눌 수 있는가?”

성남은 답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성남부터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서겠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포용적 복지를 확대하고**  
**공공주거를 좀더 확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남은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불가역적인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남은 다음 세대 **아동**에 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 어린이 100만원 병원비 상한제, 무상급식 등**



**기업과 지역 간의 결합**을 추진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 신도심에 있는 기업들은  
구도심의 주차난, 교육문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 일을 로봇에게 빼앗아갈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간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일자리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노인을 살피는 것을  
일로 인정하고  
정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유발하라리의 저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중

쌍둥이 혁명으로 인해 모든 게 변할 겁니다.  
노동의 패러다임도 바뀔 것입니다.

그럼 도시는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복지를 제공해야 할까요?

**바로 포용적 복지**





물론 성남 혼자서는  
바뀌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벽을 허물고 이웃과, 지구촌과  
소통의 다리를 연결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영화 '블랙팬서'

“현명한 자는 다리를  
만들고 어리석은 자는  
벽을 세운다”



맥스무비

티찰라(채드윅 보스만)

“현명한 자는 다리를 만들고  
어리석은 자는 벽을 세운다.”

사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분명한 건  
적어도 자라나는 아동만큼은  
그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도시, 성남



더불어  
이 엄청난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복지 개념을  
여러분께서 정립하고 수용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